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강창화 · 김용덕 · 황석규 (제주고고학연구소)

목 차

1.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의 조사 개요
2.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의 연구 성과와 의의
3. 제주 향파두성 항몽유적 토지사용 실태조사
4. 고려 대몽항쟁 성곽지역 세계문화유산 등재 제안
5. 제주향파두리항몽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양성교육
6. 제주 향파두성과 관련 주변유적의 활용 방안

1. 유적조사의 개요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¹⁾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상귀리 일대, 해안에서 3km 이상 올라온 해발 140~200m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성의 북쪽은 급경사 지형이며, 특히 토성의 동서쪽으로는 고성천과 소왕천이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갖춘 곳이다.

향파두리 항몽 유적은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그 동안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통해 대문지의 존재 가능성, 내성내 건물지의 확인, 요새 건물지와 망루지 확인, 추가로 축조된 옹성, 구시물내 목조 구유[구시통] 등이 확인되었다.

최근 발굴조사에서는 내성도 외성과 마찬가지로 토성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성의 정확한 측량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15리[6.0km]가 아닌 10리[3.87km]로 계측되었다.

내성지 시굴조사에서는 성벽 하단 기초석렬과 판축된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내성지는 사다리꼴[梯形] 형태이며 각각의 장축 길이는 북쪽 178m, 남쪽 192m, 동쪽 194m, 서쪽 192m 정도이다. 내성 안에 자리했던 건물지와 부속시설 등은 모두 북서쪽에 치우쳐 확인되었다. 내성지내에서는 건물지 기반석렬, 초석, 적심석, 문지도리, 부와시설(數瓦施設) 등 다양한 시설물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 구역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내성의 중심 건물지로 판단된다.

또한 내성지 북쪽 구릉 정상부에서 방형의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고 동쪽 성벽 안쪽 지점에서도 정면 2칸, 측면 1칸의 적심이 중복된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토성의

1) 현재 향파두리 토성은 사적 396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명칭은 '제주향파두리항몽유적'이며 1997년 4월 18일자로 지정되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외 577필지이며 지정면적은 768,534㎡이다.

남동쪽에 자리한 안오름 정상부에서도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들은 토성과 근접되어 있고 입지상 조망이 유리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망루(望樓)로 추정된다. 그 외 시굴지역 전체에서 수혈건물지, 수혈유구, 유물포함층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향파두리 토성²⁾의 축조 기법에 대한 조사가 5차례 이루어졌는데 2012년 본격적인 토성발굴조사에서 토성판축기법이 확연히 드러났다. 향파두리 토성의 축조방법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토성인 강화중성과 매우 유사하다. 토성의 구조는 고려시대 토성의 기본 구조인 기저부석축열, 영정주초석, 중심토루, 내외피토루, 와적층 등으로 확인된다. 향파두리 토성의 토성부 판축기법은 흙을 쌓고 다지는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토성체로서의 강도를 얻는 판축공법[지정공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이루어진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로 13세기 말의 다양한 상감청자류[접시, 대접, 잔, 뚜껑(蓋), 투각돈(墩), 두침(頭枕)]가 출토되었다. 또 원대 중국제 도자기류도 일부 확인되었다. 기와류는 연판(화)문 숫막새, 당초문 암막새, 어골문과 수지문이 복합된 평기와[암키와, 수키와] 등 다수가 출토되었다. 특히 ‘곽지촌(郭支村)’, ‘고내촌(高內村)’, ‘만(田)’ 등의 명문기와도 출토되었다. 또한 지도원보(至道元寶), 원풍통보(元豐通寶), 정화통보(政和通寶) 등의 동전도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청동제품으로 청동병, 청동잔, 청동제 숟가락과 젓가락, 청동제 바늘 등이 확인되었다. 또 철제품으로는 철제술, 팽이,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특이한 유물로 석재 고누놀이판이 내성지내에서 수습되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간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학술조사, 발굴조사에서 나온 고고학 자료, 유적 보존과 활용계획 보고서 등을 참조로 하여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의 연구 성과와 의의

1) 제주 향파두성으로 향몽거점 이동

9개월간 진을 친 진도 삼별초 정부의 함락 이전부터 제주는 이미 삼별초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고 진도 함락 이후에는 김통정(金通精)의 지휘 하에 진도를 탈출한 삼별초의 잔여세력이 들어왔다. 이로부터 31여 개월 동안 제주에는 최후까지 향몽활동을 벌였던 삼별초의 주요 거점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대몽항쟁이 전개되는 동안 제주에는 진도의 삼별초 정부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향몽의 거점으로 삼을만한 지역으로 주목된 곳이었다. 당시 무신 집정자가 정부를 제주로 옮기려고 3차례나 시도했고 이미 사전작업 임무를 띤 수령도 파견했던 것 같다. 이 점은 삼별초가 반기를 들어 남하할 때 근거지로 삼을 지역으로서 제주와 진도를

2) 필자는 본고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동일 개념의 뜻으로 ‘향파두리 토성’과 ‘향파두성’을 둘 다 제시했다. 현재 일반·행정적 명칭으로는 ‘향파두리 토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술·역사적 명칭으로는 ‘향파두성’을 사용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의 용어사용은 문장의 내용에 따라 이 적용방식을 사용하였다

오랫동안 저울질하다가 진도를 먼저 택했고, 여기에서 이들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항몽 연합전선을 꾀하고자 했던 사실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삼별초 정부가 진도에 자리 잡은 뒤 제주 지역을 배후거점으로 확보하고, 진도 함락 뒤에는 제주를 최후의 항몽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 어쩔 수 없었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라 할 수 있겠다.

2) 제주 향파두성의 입지

현재 향파두리의 지형 측량 결과를 보면 삼별초가 왜 이곳에 축성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다. 제주도내 여러지역의 사전 답사를 통해, 해발 200m에 위치한 조망권, 하천과 오름 등 지형적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곳에 최종 방어선인 성을 축성하면 천혜의 요새지로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즉, 고성천과 소왕천은 향파두성을 요새화하는데 특히 중요한 해자 역할과 함께 동~북서 사면 지구에 경사각을 더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가파른 지형을 빚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동~북서 사면은 여몽 연합군이 토성 안으로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지형적 조건이 갖추어진데다 주위의 지형보다 훨씬 높아 바다를 비롯한 동서 양방면에서 연합군의 침입로를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고성지역은 토성 축조에 필요한 양질의 점토가 주변에 풍부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점토를 대량으로 채굴한 장소는 성내에 연못을 만들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결국 수차례의 사전답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곳 고성리에 향파두성을 축조했다고 볼 수 있다.

3) 제주 향파두성의 방어체제

진도 삼별초는 100km 이상 남하하여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섬인 제주도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삼별초는 이미 강화도에서 외성(해안방어시설), 중성(민간주택, 시장, 사원 등의 도시시설 공간), 내성(궁궐과 관아 공간)으로 이루어진 3중 방어체제를 구축했었고 진도에서는 외성, 내성으로 이루어진 2중 방어체제를 구축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제주도로 방어 거점을 옮긴 후 삼별초는 어떠한 방어체제를 구축했을까.

알다시피 향파두성 조망권 안에 고려시대 제16현촌 중 6개의 현촌(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괭지현, 귀덕현, 명월현)이 모여 있다. 이 지역은 당시 제주 인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당시 제주민은 원 지배하의 고려정부보다 삼별초 정부를 친연적 관계로 생각하는 ‘토인[土人, 제주토박이, 유력세력]’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해안에 해안방어선을 구축했다. 이것이 문헌에 전하는 고장성(古長城) 즉, 환해장성(環海長城)이다. 또 각 현에는 현청을 에워싼 성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 예로 고내현촌[고내현성], 괭지현촌[괭자현성], 귀덕현촌[석천촌, 잣성], 명월현[명월성], 애월현[애월목성] 터에서 그 흔

적이 발굴되거나 구전으로 전한다. 게다가 이들 현을 중심으로 유사시 망대 역할을 하는 오름들이 모여 있다. 이에 따라 천혜의 항파두성과 더불어 현청과 오름, 그리고 해안에 길게 구축한 환해장성이 모두 방어체제 범주 안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제주삼별초는 환해장성(1차 방어선), 6~7현성이 구비한 성과 방어시설물(2차 방어선), 항파두성과 내성(3차 최종방어선)으로 이루어진 3중 방어체제를 구축했다. 이외에 해안가 오름의 진지와 항파두성내 망오름과 망대들이 서로 연결된 긴밀한 연락 체제를 구축했을 것이다.

4) 제주 항파두성의 축성방법

2012년 본격적인 토성발굴조사에서 토성판축기법이 확연히 드러났다. 항파두리 토성의 축조방법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토성인 강화중성과 매우 유사하다. 토성의 구조는 고려시대 토성의 기본구조인 기저부석축열, 영정주초석, 중심토루, 내외피토루, 외적층 등으로 확인된다. 항파두리 토성의 토성부 판축기법은 흙을 쌓고 다지는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토성체로서의 강도를 얻는 판축공법[지정공법]을 사용하였다.

즉, 기저부 석축열 위에 중심토루를 축조하고 그 상단에 내·외피 토루를 얹어 마무리한 점이 특히 유사하다. 다만 제주 항파두성의 경우 중심토루의 내·외면 전체에 걸쳐 할석을 깔아 기초부를 형성한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판축용 틀을 사용한 토성 축조기법은 양자 간에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는 삼별초가 강화도-진도-제주도로의 입도 기간이 1년 남짓임으로 같은 토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5) 항파두성 내성의 규모와 성격

최근 항파두성내 발굴조사에서 내성도 외성과 마찬가지로 토성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외성의 정확한 측량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15리[6.0km]가 아닌 10리[3.87km]로 계측되었다. 내성지 시굴조사에서는 성벽 하단 기초석렬과 판축된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내성지는 사다리꼴[梯形] 형태이며 각각의 장축 길이는 북쪽 178m, 남쪽 192m, 동쪽 194m, 서쪽 192m 정도이다. 내성 안에 자리했던 건물지와 부속시설 등은 모두 북서쪽에 치우쳐 확인되었다. 내성지내에서는 건물지 기단석렬, 초석, 적심석, 문지도리, 부와시설(敷瓦施設) 등 다양한 시설물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 구역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내성의 중심 건물지로 판단된다.

항파두성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대략 4~6동에 불과하다. 진도의 경우에는 용장성내에 궁궐이 존재한다. 왕자 왕온이 추대되었고 여몽연합군에 의해 살해된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제주 삼별초는 왕을 추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마도 시굴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4~6동의 군지휘부[軍指揮本府] 건물만 존재했을 가

능성이 짙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내성 내측의 레벨이 외측 레벨보다 1.5m 이상 낮으며 건물지의 기반 석렬은 내성 외측 구지표 레벨보다 심지어 2m 이상 낮다. 이러한 높이차를 고려한다면 완성된 지휘부 관아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너무 낮아 기와 건물의 권위와 위용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6) 제주 향파두성 출토유물의 시사점

2011년부터 이루어진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로 13세기 말의 다양한 상감청자류[접시, 대접, 잔, 뚜껑(蓋), 투각돈(墩), 두침(頭枕)]이 출토되었다. 또 원대 중국제 도자기류도 일부 확인되었다. 기와류는 연판(화)문 숫막새, 당초문 암막새, 어골문과 수지문이 복합된 평기와[암키와, 수키와] 등 다수가 출토되었다. 특히 ‘곽지촌(郭支村)’, ‘고내촌(高內村)’, ‘만(卍)’ 등의 명문기와도 출토되었다. 또한 지도원보[至道元寶, 995~997], 원풍통보[元豐通寶, 1078~1085], 정화통보[政和通寶, 1111~1117] 등의 동전도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청동제품으로 청동정병, 청동잔, 청동제 숟가락과 젓가락, 청동제 바늘 등이 확인되었다. 또 철제품으로는 철제술, 팽이,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특이한 유물로 개성 만월대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석재 고누놀이판이 내성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이외에도 1993년 12월에 ‘목조 구유(통)’가 확인되어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강화도성과 진도 용장성 궁궐터에서 출토된 유물 종류가 대부분 출토되고 있다. 비교적 고급물품에 해당되는 투각돈(透刻墩)과 두침(頭枕)과 같은 청자류는 물론, 연판문 숫막새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청동정병은 진도에서 출토된 바 없는 물품이다. 또 탐라 고내·곽지현촌[縣村] 명문 기와가 출토된 점도 특이하다. 주변 현촌의 기와가 출토된 점은 향파두성 축조시 주변 현촌과의 유연적 관계 및 시급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게다가 ‘만(卍)’ 명기와는 향파두성내에 사찰이 존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화통보(政和通寶) 등의 동전은 주로 건물지 구역에서 출토되지만 일부 토성의 기저부 석축렬에서도 출토된다 이는 관축용 틀을 사용하여 토성을 축조할 때 일정구간마다 제의 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도 있다. 고누놀이판은 개성만월대 이외에 강화도성 및 진도 용장성 궁궐터에서도 출토된 바 없는 놀이판이다. 이 놀이판은 재질이 제주도 조면암질 이어서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다.

덧붙여 삼별초 멸망 후에도 향파두성내에 시설물이 남아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2002년 지표조사시 향파두성 내에서 분청사기와 백자의 양이 적지 않게 수습되어 보고자는 15~16세기까지는 건물이 존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발굴조사를 거친 후 사실 규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제주 향파두성 항몽유적 토지사용 실태조사³⁾

1) 금번 조사는 사적지 범위와 그 보존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12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1,100,595㎡이고 해당 필지는 국유지 및 도유지 그리고 사유지를 포함하여 모두 579필지이다. 그 중 국유지 및 도유지 261필지가 토지사용 실태조사 필지에 해당된다.

2)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사무소가 제공한 「항몽유적지 토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토지소유 현황(2014. 09. 30)은 지적면적이 577필지, 1,328,042㎡(132.9ha)이고 문화재 구역은 577필지, 1,100,559㎡(지정구역 867,615, 보호구역 232,944)이다. 금번 조사된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토지소유 현황(2014. 09. 30)은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토지소유 현황(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사무소 제공)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율(%)	소 유 자	비 고
국유지	9	35,537	3	국토해양부 외 1	지정구역 : 23,245㎡ 보호구역 : 12,292㎡
도유지	249	497,373	45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구역 : 431,784㎡ 보호구역 : 65,589㎡
사유지	319	567,649	52	개인소유	지정구역 : 412,586㎡ 보호구역 : 155,063㎡
계	577	1,100,559	100		

3)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토지증감 현황(2014. 09. 30)은 다음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표 2>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토지증감 현황(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사무소 제공)

구 분	기존 토지		사유지 매입		현재 토지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국유지	9	35,537㎡			9	35,537㎡
도유지	91	98,490㎡	증 158	증398,883㎡	249	497,373㎡
사유지	479	966,532㎡	감 158	감398,883㎡	319	567,649㎡
계	577	1,100,559㎡			577	1,100,559㎡

①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상귀리 1072번지(도유지, 3,180㎡) 필지가 1989년 5월 18일

3) 제주시·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사적 제396호 제주향파두리 항몽유적 토지사용 실태조사보고서』. 이 조사의 목적은 사적 제396호로 지정된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에 대한 토지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사적지내 토지 이용실태(현황, 시굴·발굴조사 유무 등)를 파악하고 차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조사 범위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12번지 일원(총 면적 1,100,595㎡, 559필지 중 국·도유지 258필지)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30일(착수일로부터 60일간)까지였으며 제주고고학연구소가 진행하였다.

상귀리 1072-1번지(사유지, 전, 1582㎡)로 분할되었고 다시 2011년 10월 20일 상귀리 1072-2(도유지, 도로, 195㎡)와 상귀리 1072-3(사유지, 전, 158㎡)로 세분 분할되어 도유지 1필지, 사유지 2필지가 늘어났다. 더불어 이번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실태조사를 통해 4필지[고성리 1136-3번지(도유지, 도로, 366㎡), 상귀리 898-2번지(도유지, 도, 221㎡), 상귀리 998번지(사유지, 묘, 1,514㎡), 상귀리 999번지(사유지, 임, 1,854㎡)]가 토지조서 자료에 추가가 되었다.

② 따라서 사유지는 상귀리 1072-1번지가 필지 분할로 2필지가 증가한 반면 사유지에서 도유지로 매입된 필지는 모두 3필지가 증가하여 2015년 1월 현재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토지증감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이 요약된다.

<표 4>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토지증감 현황(2015년 1월 현재)

구 분	기존 토지		사유지 매입		현재 토지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국유지	9	35,537㎡			9	35,537㎡
도유지	91	98,490㎡	증 161 (분할1/매입2)	증399,635㎡	252	498,125㎡
사유지	477	966,532㎡	감159 (분할1/도유2)	감399,635㎡	318	566,897㎡
계	577	1,100,559㎡			579	1,100,559㎡

* 증가된 도유지 3필지[상귀리 1072-2(도유지, 도로, 195㎡)와 고성리 1136번지(도유지, 도로, 366㎡), 상귀리 898번지(도유지, 도, 221㎡)]의 면적은 752㎡이다

4)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사유지 매입현황(2014. 09. 30)은 다음 <표 5>와 같이 요약된다.

<표 5>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사유지 매입현황(2014. 09. 3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이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필지수	97	9	5	5	12	6	3	6	15	158
면 적	197,051	29,517	20,539	28,545	20,871	15,292	16,082	31,563	39,423	398,883
보상비	4,728	704	478	701	492	419	487	793	1,200	10,002

* 한편 2006년 이전 연도별 항몽 유적 토지매입 현황(2014. 09. 30)은 다음과 같다. ①1997년(8필지, 5,069㎡), ②1998년(21필지, 15,344㎡), ③1999년(23필지, 22,290㎡), ④2000년(7필지, 12,312㎡), ⑤2001~2003년(토지매입이 없었음), ⑥2004년(13필지, 43,114㎡), ⑦2005년(14필

지, 51,981㎡), ⑧2006년(14필지, 46,941㎡, 4,728백만원, 보상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2006년 이전 합계임)이다.

5) 또한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내의 국유지(國有地)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이 요약된다.

<표 6>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내의 국유지(國有地) 현황(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관리사무소 제공)

(단위: ㎡)

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편입면적	소유자
1	고성리	1295-2	도	390	0	390	390	국토해양부
2	고성리	1299-2	도	1,072	0	1,072	1,072	국토해양부
3	고성리	1556	천	124,016	0	1,916	1,916	국토해양부
4	고성리	1579	도	67,721	9,037	2,678	11,715	국토해양부
5	고성리	1581	구	3,048	0	165	165	국토해양부
6	고성리	1582	도	178	0	71	71	국토해양부
7	상귀리	1092-3	임	23	0	23	23	재정경제부
8	상귀리	1577	도	29,967	14,208	5,754	19,962	국토해양부
9	상귀리	1578	천	47,560	0	223	223	국토해양부
	계	9필지		273,975	23,245	12,292	35,537	

* 현재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 국유지(國有地)는 총 9필지(273,975㎡)이고 도유지(道有地)는 252필지, 사유지(私有地)는 318필지로 도합 579필지이다.

6) 또한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내 국유지 및 도유지에 대한 향몽유적지 토지 무상임대 및 경작 현황(2013. 12. 30)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 7>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내 국유지 및 도유지 향몽유적지 토지 무상임대 및 경작 현황

(단위: ㎡)

연 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신 청 인	경작	비 고
1	고성리	1167	전	1,144	양○수(前 소유자)	콩	- 2013년 이후 경작이 종료되어 휴경지 상태임.
2	고성리	1169-1	전	1,291			
3	고성리	1169-2	전	1,633			
4	상귀리	978-3	전	2,415			
5	상귀리	891-1	임	5,365	농업 기술원	콩	- 2013년 이후 경작 종료, 휴경지
6	상귀리	905	과	7,902	하귀농협	콩	- 하귀농협 주부모임 경작 중
7	상귀리	910	전	6,274	농업 기술원	감자 양파	- 농업기술원이 감자, 양파 묘종 등 농산물원종장으로 사용
8	상귀리	964-1	전	2,498			
10	상귀리	1016-1	전	1,802			

9	상귀리	1014	전	3,382	애월읍 이장단 협의회	양파	- 경작이 금지된 상태임
11	상귀리	1019	전	3,471			
12	고성리	1171	전	3,191		콩, 보리	- 문○식(前애월이장협의회장) 임대 경작 중
13	고성리	1147	과	5,190			
14	고성리	633-1	전	4,673			

7) 이번 토지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내 국유지 및 도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자(기관) 현황(2014. 12. 30)은 다음 <표 8>과 같이 요약된다.

<표 8>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국·도유지 토지사용자(기관) 현황(2014. 12. 30)

(단위: m²)

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 구역	보호 구역	편입 면적	토지사용자 (거주지)
1	고성리	512	전	4,575	0	4,575	4,575	문○하(고성리)
2	고성리	516	전	2,308		2,308	0	김○(고성리)
3	고성리	627	과	1,851	1,851	0	0	한○철(고성리)
4	고성리	633-1	전	4,673	4,673	0	4,673	문○식(고성리)
5	고성리	651	과	4,232	4,232	0	0	한○철(고성리)
6	고성리	652	과	2,104	0	2,104	2,104	한○철(고성리)
7	고성리	655-1	임	5,525	5,525	0	5,525	백○길(외도동)
8	고성리	1130	임	5,454	5,454	0	5,454	백○길(외도동)
9	고성리	1145-1	전	5,451	5,451	0	5,451	김○식(고성리)
10	고성리	1146	전	5,088	5,088	0	5,088	김○식(고성리)
11	고성리	1147	과	5,190	5,190	0	5,190	문○식(고성리)
12	고성리	1171	전	3,191	3,191	0	3,191	문○식(고성리)
13	상귀리	782-1	임	3,715	0	3,715	3,715	강○환(상귀리)
14	상귀리	885	과	2,016	0	2,016	2,016	양○하(고성리)
15	상귀리	891-1	임	5,365	5,365	0	5,365	농업기술원
16	상귀리	897-1	전	4,198	4,198	0	4,198	농업기술원
17	상귀리	905	과	7,902	7,902	0	7,902	하귀농협 주부모임
18	상귀리	910	전	6,274	6,274	0	6,274	농업기술원
19	상귀리	924	답	785	785	0	785	주○수(고성리)
20	상귀리	934	과	1,817	1,817	0	1,817	강○휴(유수암리)
21	상귀리	940	전	27,807	27,807	0	27,807	농업기술원
22	상귀리	960	전	2,668	2,668	0	2,668	강○구(유수암리)
23	상귀리	964-1	전	2,498	2,498	0	2,498	농업기술원
24	상귀리	981-2	전	2,516	2,516	0	2,516	향몽유적관리사무소
25	상귀리	1046-2	도	165	165	0	165	양○혜(하귀리)
26	상귀리	1047-1	과	3,898	3,898	0	3,898	양○혜(하귀리)
27	상귀리	1048	과	2,875	2,875	0	2,875	양○혜(하귀리)
28	상귀리	1085	과	4,828	0	4,828	4,828	강○석(수산리)
29	상귀리	1085-1	과	3,357	3,357	0	3,357	강○석(수산리)
계		29필지		132,326	112,780	19,546	123,935	

(1) 현재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 국유지(國有地, 9필지)는 임대 경작지가 없다. 반면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국·도유지 토지 무상임대 및 경작 상황(2013. 12. 30)’을 참조하여 이번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유지(道有地, 252필지)중에서는 상귀리 905번지[하귀농협 주부모임, 감귤과수원(비닐하우스 감귤 재배)], 상귀리 891-1, 897-1, 910, 940, 964-1번지[농업기술원에서 감자와 양파 묘종을 재배하는 농산물원종장으로 사용]가 정식으로 임대 사용 중이다. 더불어 고성리 1171, 1147, 633-1번지는 문○식[前애월이장협의회장]이 임대 경작[콩, 보리] 중이다(표 7 참조).

(2) 더불어 현재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내 국유지 및 도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자(기관) (2014. 12. 30)을 보면 앞서 제시한 농업기술원, 하귀농협주부모임, 문○식 외에 문○하[고성리 512 경작], 김○수[고성리 516 경작], 한○철[고성리 627, 651, 652번지 경작], 백○길[고성리 655-1, 1130번지 경작], 김○식[고성리 1145-1, 1146번지 경작], 강○환[상귀리 782-1번지 경작], 양○하[상귀리 782-1번지 경작], 주○수[상귀리 924번지 경작], 강○휴[상귀리 934 경작], 강○구[상귀리 960번지 경작], 양○혜[상귀리 1046-2, 1047-1, 1048번지 경작] 강○석[상귀리 1085, 1085-1번지 경작] 등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귀리 981-2번지는 향몽유적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국·도유지 252필지 중 29필지[상귀리 981-2번지 조경수 식재지 포함]가 경작 중에 있다(표 8 참조).

8) 이를 종합하여 현재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 국유지(國有地)는 총 9필지, 도유지(道有地)는 252필지이며 도합 261필지에 대한 토지사용 실태조사는 다음 <표 9, 10, 11>과 같이 요약된다[본 용역보고서 <표 12>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토지사용 실태조사 현황표(고성리), <표 13>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토지사용 실태조사 현황표(상귀리) pp. 295-301 참조]

<표 9>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국·도유지 토지사용 실태조사 집계 현황

(단위: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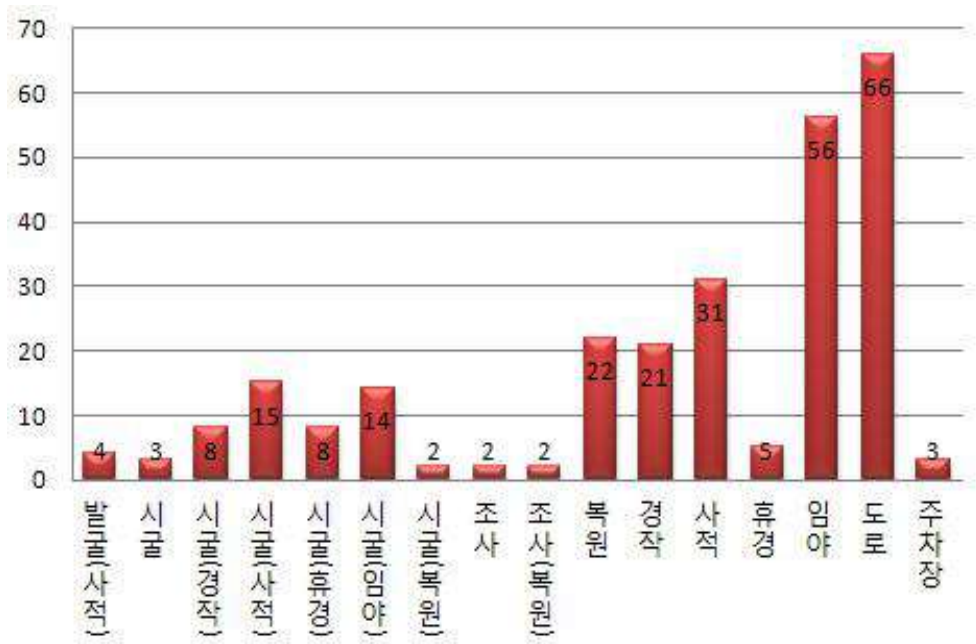
항목	시굴 · 발굴조사(57)									복원	경작	사적	휴경	임야	도로	주차장	계
	발굴 (사적)	시굴 조사	시굴 (경작)	시굴 (사적)	시굴 (휴경)	시굴 (임야)	시굴 (복원)	확인 조사	조사 (복원)								
수량	4	3	8	15	8	13	2	2	2	22	22	31	5	55	66	3	261

2)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도유지 261필지[국유지(9필지), 도유지(252필지)]에 대한 토지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집계하면 <통계표 10, 11>와 같이 제시된다.
지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집계하면 <통계표 10, 11>와 같이 제시된다.

<표 10>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국·도유지 토지사용 실태조사 통계표(1)



<표 11>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국·도유지 토지사용 실태조사 통계표(2)



9) 이번 향파두리 항몽유적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단의 견해를 몇 가지 제언[提言, 提案]

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현재 도유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이 임대하여 경작 중인 상귀리 891-1, 897-1, 910, 940, 964-1번지 뿐만 아니라 하귀농협 주부모임(상귀리 905번지), 문창식[고성리 171, 1147, 633-1번지], 문근하[고성리 512번지], 김정수[고성리 516 번지], 한재철[고성리 627, 651, 652번지], 백장길[고성리 655-1, 1130번지], 김동식[고성리 1145-1, 1146번지], 강경환[상귀리 782-1번지], 양병하[상귀리 782-1번지 경작], 주홍수[상귀리 924번지], 강창휴[상귀리 934번지], 강인구[상귀리 960번지], 양산해[상귀리 1046-2, 1047-1, 1048번지] 강남석[상귀리 1085, 1085-1번지] 등이 임대 경작 중인 23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존 범위 내 국유지 및 도유지를 임대 경작하는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무상 임대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현재 향파두리 내성지와 토성을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장 공개에 따른 참관 학습이나 학술답사를 위해 향파두리 토성 전체의 탐방코스 개발이 시급하다. 이번 토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고성리 651번지(과))에서 고성리 630번지(임)로 이어지는 토성 구간 외에 전 토성 구간이 국유지 및 도유지로 편입되어 있어 ‘향파두리 토성 둘레길 학술 답사’가 가능함으로 답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3) 이처럼 ‘향파두리 토성 둘레길 학술 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답사 동선의 개발과 안내서 발간, ②답사와 연계한 발굴 현장[내성지 및 토성발굴지]의 공개, ③답사코스 지점마다의 안내판 설치 등이 선행과제이다.

4. 고려 대몽항쟁 성곽지역 세계문화유산 등재 제안⁴⁾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고려의 삼별초는 3개의 섬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세계 최강 군사력을 지닌 몽골군과의 해양 전투를 통해 최후까지 항쟁하며 고려의 기개를 세계에 알림.

삼별초 최후까지 활약했던 3개 섬지역의 성곽지역은 중요한 해양역사문화유적임이 분명하

4) 이 자료는 2014년 3월 4일 고고학연구소 이사로 재직 중인 황석규 박사와 필자가 마련한 ‘제주문화유산지킴이 프로젝트 운용계획(안)’으로 이 계획안은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려 대몽항쟁 성곽지역 세계문화유산 등재 토대 연구’ 제안서이기도하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초안(출처)은 제주고고학연구소(황석규·강창화)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가 별책되어져 추진 중에 있음을 밝힌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고려 대몽항쟁 성곽지역 세계문화유산 등재 토대 연구』,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계획서(안))

며, 이미 그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상태임.

- 강화고려도성(사적 제132호, 제133호, 제452호), 진도 용장성(사적 제126호), 제주 향파두리성(사적 제396호)은 세계 해양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보존관리하면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강화, 진도, 제주는 한국의 해안 공간 주요 섬들로서 이를 잇는 세계문화유산지정을 통해 해양역사.문화 관광자원 그리고 교육의 장소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시기임.

연구 배경



그림 1. 연구 배경

- 한국에서 해양의 섬을 잇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는 최초이며, 이는 앞으로 한국~일본~몽골을 잇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로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7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국민생활 속의 해양공간 창출” 전략에 적절히 부합되는 창조 연구 계획임.

- 현재 3개 섬지역의 성곽지역은 시·발굴 및 다양한 조사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을 통합하여 세계적 연구로 승화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3개 섬지역의 전문 해양문화사 연구진의 협력체를 형성(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하여 공동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야 함.

토대연구의 진행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기초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연구 목적

○ 창조적 의미

- 해양수산부의 7대 전략 중 하나인 국민생활 속의 해양공간 창출과 부합된 의미를 함축하며 창조적인 연구임.
- 해양수산부의 “국민생활 속의 해양공간 창출 전략”의 내용(국민들이 즐겨찾는 어민친화적 해양공간 조성, 4계절 중단없는 해양수산 관광자원 확충,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수산업 교육 인프라 고취)은 이번 3개의 섬을 잇는 고려해양 국가의 역사문화 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2013년 해양수산부의 업무 계획에 있어서도 국민 힐링 해양공간 조성 및 어촌마을 특화 개발 영역에 이번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님.

○ 학술적 의미

- 고려시대 성곽지역은 한국 4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북한의 개경 만월대를 제외하고는 3개의 성곽지역 모두 한국 주요 해양공간인 섬에 위치하고 있음.
- 한국 3곳 고려 성곽지역의 학술 경과 및 결과를 동시에 종합하면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연구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
- 고려말의 국제정세와 고려시대의 정치, 역사, 문화 환경을 전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음.
- 세계문화유산 등재 토대 연구를 위한 국내외학술대회의 전개를 통해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와 공동 인식을 창출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음.(참고로 한국 내 지자체 협력을 통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화순, 고창, 강화를 연계한 고인돌군이 존재함.)

○ 보존 및 활용의 의미

-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성격을 띤 조사연구는 고려해양역사의 원초적 의미를 담은 성곽지역 및 주변 환경의 정비 복원 계획을 함축하게 되며, 이는 세계시민친화적 해양 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됨.
- 학술 토대 연구는 고려해양역사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이는 지자체들의 협력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단계에 기여하게 됨.
- 학술 토대 연구는 고려해양 관광자원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어촌관광화 사업에 기여함.
- 지역들을 연결한 관광사업 활용 및 산업발전 모색(마리나.크루즈 해양레저사업 및 어촌 특화 개발 사업)이 가능함.

○ 세계사적 의미

- 삼별초 대몽항쟁 이후 제주를 몽골 직할의 100년 지배 체제로 편입됨.
- 몽골의 일본 1, 2차 정벌에 따른 고려와 제주의 역사 바로알기
- 삼별초 패잔병과 오키나와와의 연계에 대한 여러 의문에 대한 조사연구

- 고려 대몽항쟁을 통한 몽골~한국~일본으로 연결하는 세계사적 연구

표 1. 삼별초 성곽 유형

유적명	사적	성곽 구조	내성		중성		외성	
			규모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종류
강화 고려도성	133호	3중성	1.8km	토성	12km	판축 토성	23km	토성
진도 용장성	126호	2중성	425m	석심 토축			13km	석성
제주 항파두리성	396호	3중성		석심 토축	3.8km	판축 토성	환해 장성	석성

* 출처: 진도 용장성 종합정비기본계획, 2013, p. 55.

다.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삼별초 성곽지역 전체
- 삼별초 성곽지 주변 및 관련 연계 유적
- 삼별초 성곽 유형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가 2014년 1월이고 목표연도를 2015년 12월로 설정하는 2차년도 계획의 성격을 가짐.
- 1차년도와 2차년도를 구분하여 토대연구 실행

○ 내용적 범위

- 연구 내용 범위

표 2. 연구 내용 범위

년도	연구 내용 범위
1차	-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연구진 간 협력관계 구축, 세계문화유산 타당성 조사, 공동 삼별초 관련 문헌 및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국내 학술대회
2차	-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연구진 간 공동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세계문화유산 타당성 조사, 지자체간 협력관계 구축, 세계문화유산 토대 조사 연구 결과 보고

라. 계획의 추진 방향

- 연구 목적을 극대화하는 전문 공동 연구체계 구축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연구 목적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으로 공동 연구 협업체계 구축
 - 3개 섬지역 삼별초연구소를 통합한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를 조직하여 연구 활동
- 연구기관 간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는 고려해양역사문화 학술대회 개최
 - 국내외학술대회의 지속적 개최를 통한 시민에의 홍보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 1989년 결연한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 부활 및 활성화 추진
- 3지자체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 실시

2) 현황 분석

가. 성곽지역 일반 현황

- 강화고려도성⁵⁾



사진 1. 강화 중성 전경⁶⁾



사진 2. 강화중성 및 건물지 조사 후 전경⁷⁾

- 고려 진도용장성에 관한 발굴조사 자료와 중요성은 본 발표요지 「江都 江華中城의 築城과 三別抄」(김호준, 2015)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음.

5) 김호준, 2012, 고려 대몽항쟁기의 축성과 입보,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0~124 인용.

6) 출처: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강화 옥림리 유적, 강화중성·고려시대 건물지,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J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83.

7) 출처: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강화 옥림리 유적, 강화중성·고려시대 건물지,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J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18.

○ 진도 용장성⁸⁾



사진 3. 진도 용산성과 그 주변⁹⁾



사진 4. 용장성 왕궁지 발굴조사 후 전경¹⁰⁾

- 고려 진도용장성에 관한 발굴조사 자료와 중요성은 본 발표요지 「江都 江華中城의 築城과 三別抄」(김호준, 2015)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음.

○ 제주 향파두리성¹¹⁾



사진 5. 제주 향파두리성 외성(2014)



사진 6. 제주 향파두리성 내성지(2014)

8) 전라남도 진도군, 2013, 진도용장성 종합정비기본계획, 22~28 인용.

9) 출처: 진도군·목포대박물관, 2013, 2013 진도 용장성 왕궁지 발굴조사 중간보고회, 1.

10) 출처: 진도군·목포대박물관, 2013, 2013 진도 용장성 왕궁지 발굴조사 중간보고회, 2.

11)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토성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16~17, 33~34 인용, 그리고 김호준, 2012, 고려 대몽항쟁기의 축성과 입보,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3~135 인용.

3) 연구의 기본 방향

가. 비전 및 전략

(1) 비전 설정 체계

-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반영한 비전: 해양문화사적 비전
- 현실적이며 포괄적인 비전: 역사문화관광자원적 비전
- 고려문화권 형성 비전: 지자체 협력적 비전
- 계승 발전적 비전: 교육적 비전
- 세계와의 연계 비전: 몽골~한국~일본(규슈와 오키나와)을 잇는 세계사적 미래 비전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비전: 통합적 비전



그림 2. 비전 설정 체계

(2) 비전과 목표

○ 전략 설정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해야 함.
- 강화, 진도, 제주 전문 해양문화사 연구원을 주축으로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 구성
-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 중심의 기초 및 심화 연구 활동
-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 활동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 관계 구축
- 목표 전략에 따른 실행 전략 구상
-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의 직접 실행 관리 전략과 지자체 협력에 따른 간접 실행 전략으로 구분 활동
- 직접 실행 관리: 협력 영역-공동연구(각 지역 연구회에 따른 연구 성과 수집 및 조사 연구 실시), 활용 영역-국내외 학술대회
- 간접 실행 관리: 협력 영역-지자체 협력 역량 강화(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위한 모색), 활용 영역-지자체 모임 활성화(지자체 간 정기적 모임 활성화 방안 모색)



그림 3. 비전과 목표

표 3.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 실행 전략

영역/전략	협력	활용
직접 실행 관리	공동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간접 실행 관리	지자체 협력 역량 강화	지자체 모임 활성화

- 궁극적으로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 제공 및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정기적 모임이 활성화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직접 실행 관리 전략을 세우도록 진행되어야 함.

나. 연구 추진 계획

- 고려 대몽항쟁 성곽지역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연구는 2차년도로 구분하여 전

개

표 4. 연구 추진 계획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시.발굴조사	- 발굴지 견학 및 조사 연구	- 발굴지 견학 및 조사 연구
연구진 구축	- 연구진 협력관계 확립 - 연구공동체 구축 및 활동	- 연구공동체 활동
기초연구조사	- 연구공동체 공동 삼별초 관련 기초자료조사 - 세계문화유산 타당성 조사	- 연구공동체 공동 삼별초 관련 기초자료조사 분석 - 세계문화유산 타당성 조사
학술대회	- 국내학술대회	-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답사	- 3개 지역 답사	- 몽골 및 일본답사
지자체 협력관계구축	- 지자체 협력 교류 확대	- B지자체 협력 관계 구축 - 지자체 정기 모임 구축
보고서	- 1차년도 중간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4) 연구 집행 계획


가. 연구진 구성

○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해양삼별초연구회 연구진을 중심으로 강화와 진도삼별초연구회와 연계하여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 연구진을 구성함.

2013 제주고고학연구소 해양문화유산지킴이 프로젝트

고려 대몽항쟁 성곽지역 세계문화유산 등재 토대 연구(학술답사)

● 일 시 : 2013년 12월 12일(목)~12월 14일(토) ● 장 소 : 진도 용장성 및 내성지



부설 제주해양삼별초연구회

그림 6. 2013 제주고고학연구소 해양문화유산지킴이 프로젝트 프랜카드(실제 답사)

○ 강화 삼별초 관련 전공자와 행정실무자 5~7명, 진도 삼별초 관련 전공자와 행정실무자 5~7명, 제주 삼별초 관련 전공자와 행정실무자 5~10명, 해외학자 1~2명 모두 16~23명으로 연구진을 구성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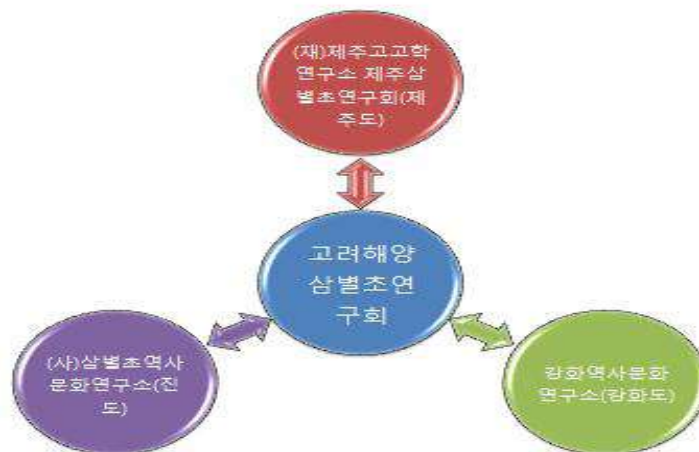


그림 7.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

나. 제주고고학연구소 실적 및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의 성격

○ 제주고고학연구소 실적

- 2011년 8월 사적 396호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 2012년 8월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2013년 11월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의 성격

- 현재 강화역사문화연구소(강화), (사)삼별초역사문화연구회(진도) 그리고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해양삼별초연구회(제주)가 존재하고 있음.
- 1999년(제주), 2000년(강화), 2009년(진도)에 이미 10년에 걸쳐 이 3개 전문 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3차례 전문가 학술대회가 진행되었음.
- 이들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문 고려해양삼별초연구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임.
-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토대연구에 중점을 두지만 더 나아가 지자체 간의 교류활동에 협력하게 됨.

다. 추진 일정 계획

1차 년도 추진 일정													
연구내용 \ 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발굴조사 견학 및 연구			0			0			0				
연구진 모임과 공동체 구축	0												
기초조사 연구			0	0	0	0	0	0	0	0	0	0	0
연구공동체 정기 모임			0			0			0		0		
국내학술대회						0					0		
현장 답사			0						0				
지자체 협력 역량 강화 협의			0			0			0		0		
세계문화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 1 (강화, 진도)						0			0				
1차년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0	0	

2차 년도 추진 일정													
연구내용 \ 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발굴조사 견학 및 연구			0					0					
심화조사 연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공동체 정기 모임			0		0		0	0			0		
국제학술대회								0					
일본 답사							0						
지자체 협력 공동체 구축					0			0			0		
세계문화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 2 (제주) 및 종합 분석		0						0	0				
2차년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0	0	

5.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양성교육

1) 목적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함양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현장 공개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마을주민이 참여한 발굴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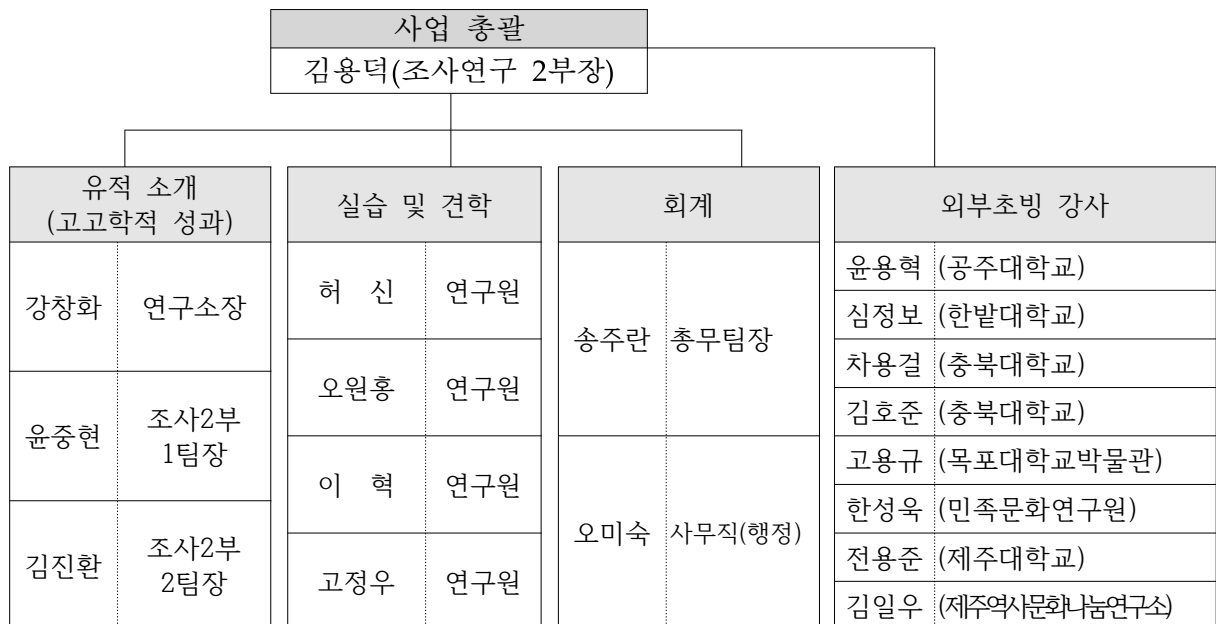
2) 추진 방향

-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유적에 대한 전문적 지식 함양
- 추후 진행되는 발굴의 현장공개 해설사로 활용함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용

3) 추진인력

- 투입인력 : 총 18명(내부 10명, 외부 8명)

- 사업수행 조직도



4) 참가 대상 및 인원

(1) 참가자 및 인원

-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신청자 : 총 20명(1회)
- 애월읍 마을 신청자 : 총 20명(1회)

(2) 모집 방안

- 애월읍 및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에 협조 요청
- 제주시 문화예술과 협조요청

(3) 접수 방법

- 협조 요청 기관을 통해 신청 명단 일괄 접수(방문접수)
- 접수 사항 :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5) 장소 및 시설

순번	항목	장소 및 시설	확보 방안
1	강의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휴게소(강의가능)	•제주시문화예술과 협조 요청
2	체험실습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 체험장	•제주시문화예술과 협조 요청
3	답사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부 및 주변일대 답사 •제주도 향몽 유적 관련유적(포구, 생활, 전적지, 전설지 등)	•자체 코스개발

6) 비품 및 물품

순번	항목	비품 및 물품	확보 방안
1	강의	•노트북, 빔프로젝터, 스크린 •강의자료집	•연구소비품활용 •강의자료 제작
2	체험실습	•토성복원용 흙 및 석재 •기와 제작 점토 •막새제작 틀	•발굴현장에서 제토 흙 사용(판촉체험) •막새제작 틀(본) 제작 •기와 제작점토(제주토) 구입
3	답사 및 견학	•답사자료집 •카메라, 필기도구, 기록장	•연구소자체 제작 •문구류 구입

7) 우리 동네 유적'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행사명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양성교육

(2) 프로그램 개요

○ 목적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일대 3개 마을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를 양성하여 유적 일대 마을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기회를 부여하여 유적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기간 : 5월~6월(1회), 9월~10월(2회)

○ 운영형태 : 1회당 4주(32시간) 과정 / 년 2회(8주, 64시간)

○ 장소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발굴현장 및 휴게실

○ 참가인원 : 20명/ 년 2회 (총 40명)

○ 주요 내용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의 역사적 배경 이론교육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이론교육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실무교육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과 관련된 유적 답사(도내일원)



사진 7. 우리동네 유적 참여프로그램 현장(1)



사진 8. 우리동네 유적 참여프로그램 현장(1)

8) 프로그램 세부 일정

대상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주민	인원	20명
일정	5월 15일(금)	운영형태	첫 주 (1/4)

구분	시간	프로그램	장소
준비	09:30~09:40 (10분)	○ 일정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 - 참가자 출석 및 인원확인, 교재 및 명찰 배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휴게실
소개	09:40~10:10 (30분)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소개 및 프로그램 개요 - 강사: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	10:10~10:30 (20분)	휴 식	
강의	10:30~11:40 (1시간10분)	○ 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 - 강사: 김일우(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소장)	
-	11:40~12:50 (1시간10분)	점 심 식 사	
강의	12:50~14:00 (1시간10분)	○ 오늘날, 제주 항몽유적의 가치 - 강사: 김일우(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소장)	
-	14:00~14:20 (20분)	휴 식	
강의	14:20~15:30 (1시간10분)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발굴조사와 그 성과 - 강사: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	15:30~15:50 (20분)	휴 식	
강의	15:50~17:00 (1시간10분)	○ 한국의 성곽(토성을 중심으로) - 강사: 차용걸(충북대학교 교수)	

대상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주민	인원	20명
일정	5월 29일(금)	운영형태	둘째 주(2/4)

구분	시간	프로그램	장소
준비	09:20~09:30 (10분)	○ 일정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 - 참가자 출석 및 인원확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휴게실
강의	09:30~10:40 (1시간10분)	○ 한국의 읍성을 중심으로 - 강사: 심정보(한밭대학교 명예교수)	
-	10:40~11:00 (20분)	휴 식	
강의	11:00~12:10 (1시간10분)	○ 삼별초 대몽항쟁(강화중성)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 강사: 김호준(충북대학교 강사)	
-	12:10~13:20 (1시간10분)	점 심 식 사	
강의	13:20~14:30 (1시간10분)	○ 해상왕국 건설을 위한 꿈의 좌절 : 진도 삼별초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 강사: 고용규(목포대학교박물관 특별연구원)	
-	14:30~14:50 (20분)	휴 식	
강의	14:50~16:00 (1시간10분)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출토 고려청자의 현황과 성격 - 강사: 한성욱(민족문화재연구원 원장)	
-	16:00~16:20 (20분)	휴 식	
강의	16:20~17:30 (1시간10분)	○ 삼별초의 항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 강사: 전영준(제주대학교 교수)	

대상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주민	인원	20명
일정	8월 7일(금)	운영형태	셋째 주(3/4)

구분	시간	프로그램	장소
준비	09:20~09:30 (10분)	○ 일정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 - 참가자 출석 및 인원확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체험프로그 램장
소개	09:30~10:00 (30분)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출토 기와 제작 강의 - 강사: 김진환(제주고고학연구소)	
-	10:00~10:20 (20분)	휴 식	
강의	10:20~12:00 (1시간40분)	○ 기와 제작 체험 - 강사: 윤중현, 김진환, 허신, 오원홍, 이혁, 고정우(제주고고학연구소)	
-	12:00~13:10 (1시간10분)	점 심 식 사	
강의	13:20~13:50 (30분)	○ 제주항파두리 외성의 판축구조 - 강사: 윤중현(제주고고학연구소)	
-	13:50~14:10 (20분)	휴 식	
강의	14:10~15:30 (1시간20분)	○ 토성 판축 체험교육 - 강사: 윤중현, 김진환, 허신, 오원홍, 이혁, 고정우(제주고고학연구소)	
-	15:30~15:50 (20분)	휴 식	
강의	15:50~17:10 (1시간20분)	○ 기와 제작 체험 - 강사: 윤중현, 김진환, 허신, 오원홍, 이혁, 고정우(제주고고학연구소)	

대상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주민	인원	20명
일정	8월 21일(금)	운영형태	넷째 주(4/4)

구분	시간	프로그램	장소
준비	08:50~09:00 (10분)	○ 일정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 - 참가자 출석 및 인원확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및 도내
유적 내부 답사	09:00~11:40 (2시간40분)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부 답사 (토성 및 내성 발굴현장→구시물→옹성→옹성물→ →상귀리와요지) 강사: 강창화, 김용덕, 윤중현, 김지환, 허신, 오원홍, 이혁, 고정우(제주고고학연구소)	
-	11:50~13:00 (1시간10분)	점 심 식 사	
강의	13:00~16:50 (3시간50분)	○ 유적 외부 답사 (→유수암천쌀맞은돌→파군봉→환해장성→군항포) 강사: 강창화, 김용덕, 윤중현, 김지환, 허신, 오원홍, 이혁, 고정우(제주고고학연구소)	
-	16:50~17:20 (30분)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휴게실로 이동	
수료식	17:20~18:00 (40분)	○ 수료증 수여식	

9)

설문지

(해당사항에 ☒하세요.)

설문내용	매우만족 (매우그렇다)	만족 (그렇다)	보통	미흡 (아니다)	매우미흡 (매우아니다)
본 교육이 향파두리 주변 마을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교육이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본교육의 강의 일정은 만족하십니까?					
교육 중 강의 외의 진행부분은 만족하십니까?					
교육강사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본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교육 강의 장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교육 체험 장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험교육의 교육자재는 적절하다고 생가하십니까?					
답사 코스나 일정에 만족하십니까?					
교육 전체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기타건의 사항 및 의견					

6. 제주 향파두성과 관련 주변유적의 활용 방안

가. 선행 자료의 검토

1) 먼저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²⁾. ①기본계획에 있어서 계획의 기본방향은 문화역사유적의 보존과 정비, 차별화된 장소적 특성의 재고, 내부 기능의 상호연계성 강화, 동선 및 토지이용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주요시 했다. ②토지 이용 계획은 시설지역[기존 시설지역과 신규 관리시설 지역], 보존지역[기존 유적 보존지역, 새롭게 유적과 유물이 출토된 지역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 완충지역[운동시설, 휴게시설, 산책로 등]으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③동선계획은 유적내 간선도로, 시설지간 연결로, 보조동선과 토사답사동선을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④안내 체제도입 계획은 기본 방향[형태, 재료, 크기, 색채 등], 안내표지판 배치, 안내표지판 배치 종류 및 배치 기준을 다루었다. ⑤ 기반시설계획은 기본방향, 부지조성계획, 통행로 포장계획 등 제시되었고, ⑥경관계획에서는 토성의 조망권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즉, 단계적으로 토성사면과 주변사면의 수목을 제거하여야 하며 일차적으로 바다쪽[토성 북사면]을 가리고 있는 각종 수목에 대한 제거작업을 시행, 바다를 훤히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2) 더불어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에서 향파두리 향몽유적지의 문화자원화¹³⁾ 방안이 거론되었다. 문화자원화의 골자는 역사유적 재현[교육문화시설]의 구축이다. 역사유적 재현[교육문화시설]의 구축 방안은 ①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전시관[자료관] 건립, ②토성과 성문의 정비, ③토성내 유구시설과 발굴유구의 산교육장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전시관[자료관]은 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학예실, 사무실 등이 모두 갖춰진 ‘고려시대 향파두리 향몽 유적지 자료관 및 삼별초 연구센터’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계획된 동 종합전시관의 자세한 전시 규모와 시설, 전시 방향, 위치와 입지, 건축, 시설비 등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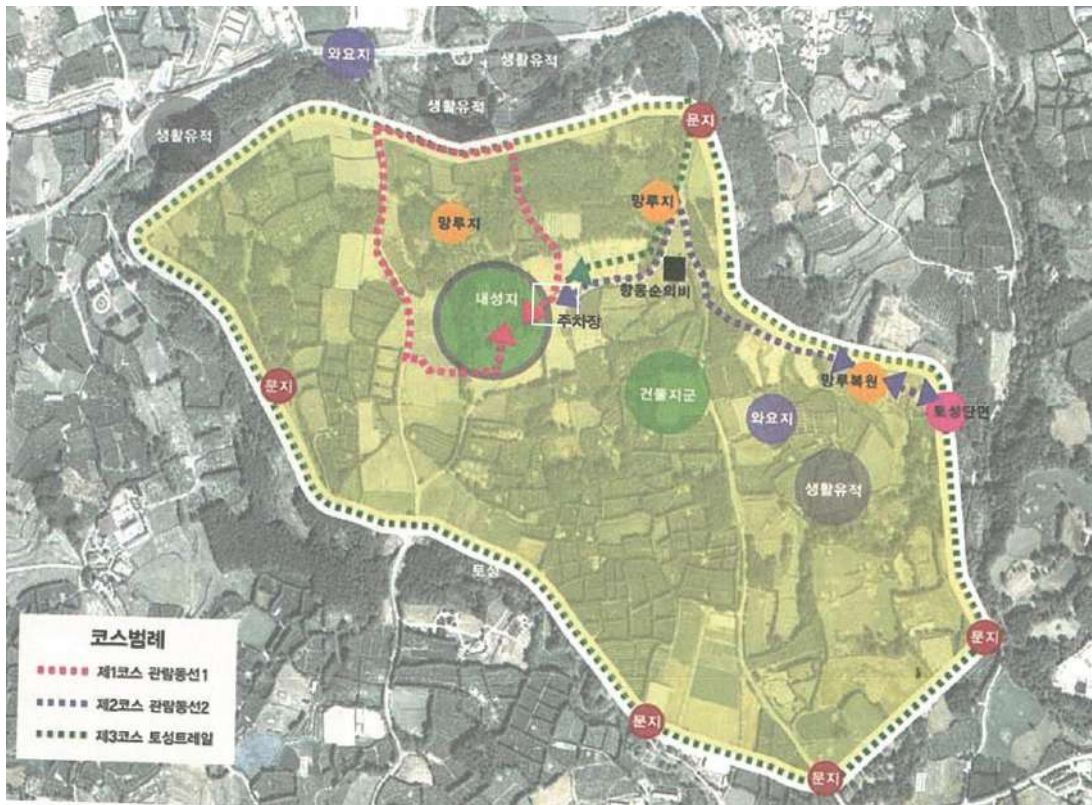
3) 박경훈소장(제주전통문화연구소)은 향파두리유적을 보존 정비 활용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¹⁴⁾. 구체적으로 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적해설사 교육 실시, ②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성 위 걷기[성담 밟기], ③향파두리 전투재현 역사

12) 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 pp.230-235.

13) 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 pp.226-229.

14) 박경훈, 2015, 「향몽유적지의 활용방안의 현실적 검토」, 『사적 제396호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활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pp.25-42.

축제, ④항파두리 역사 트레일 걷기 등 이벤트 개최, ⑤유적 관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2012년 <제주 항파두리 향몽유적 종합정비계획> 연구 용역 수행 중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①지역주민들을 문화유산해설사로 양성과 활용, ②토성 내외에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시설 구상과 조성, ③토성을 활용한 역사재현축제 개발과 시행, ④유적 주변 마을[고성리·유수암리·상귀리] 소재 유적 관련 옛지명 연구와 책자 발간, ⑤항파두리유적 주변에 역사체험관과 청소년역사수련관 계획 수립과 조성, ⑥유적 주변 마을[고성리·유수암리·상귀리]을 역사문화마을로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현실적인 민원[행정] 요구사항으로 ①평화로·중산간도로에서 항파두리유적로의 진입도로 개선대책[방안] 마련, ②항파두리유적 탐방로 주변에 향토음식점 개설 요구, ③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저감대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마을주민 중심의 문화재 활용사업 아이템은 마을기업1[삼별초공방] 조성, 마을기업2[삼별초식당] 개설, 마을 삼별초 역사문화해설사 양성 등을 제안하였다.



삽도 1. 항파두리 향몽 유적 트레일 코스(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0212, p.145 자료 참조)

4) 한편 『제주 항파두리 향몽유적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서¹⁵⁾에서 제시한 항파두리 유

15)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5, 『제주 항파두리 향몽유적 종합정비계획』, pp.145-152.

적 활성화 방안은 ①항과두리유적의 관람동선은 3개 코스로 제1코스(탐방로 순환형), 제2코스(탐방로 직선형), 제3코스(토성전체 트레일코스)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더불어 항과두리유적 및 주변관련유적지 답사, 삼별초항쟁 역사현장 답사, 올레코스 탐방객 특화 삼별초항쟁 유적지 연계 답사[올레 16코스와 연계 답사]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②삼별초항쟁 콘텐츠사업으로 삼별초항쟁 역사재현축제, 만화로 보는 ‘삼별초항쟁’, 삼별초항쟁 역사문화지도 제작[4개국어로 제작]을 제안하였다. 또한 ③삼별초 문화원형을 소재한 문화상품 활용방안으로는 삼별초 문화원형의 종류[디지털콘텐츠, 시나리오, 문화상품-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원형 콘텐츠 종류[성, 방어체제, 전투, 군대, 무기체제, 유물과 유적, 항몽전개 과정, 삼별초와 민속, 삼별초와 인물] 등을 활용 제안하였다. 덧붙여 ④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화 대상은 역사 속 삼별초[몽골의 침입, 삼별초 역사스토리], 방어체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 체제], 삼별초와 인물[김통정·김방경 등 삼별초 관련 주요 인물], 전투과정[전투, 군대, 무기 등], 자취와 흔적[유적과 유물, 삼별초와 민속]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⑤삼별초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상품은 삼별초 관련인물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삼별초 문화원형 활용 기념품 상품, 멀티미디어 e-Book 등을 제안하였다.

5) 이밖에 김일우박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는 그가 쓴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대몽항전(對蒙抗戰) 관련 유적과 그 활용방향¹⁶⁾제하의 글에서 항과두리유적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거친 후, 대몽항전 전개되던 시기의 유적을 재현[자료집 발행, 문화기행의 기회 제공]하고, 고려 대몽항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제주와 몽골간의 교류 및 제주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와 몽골교류의 전시관을 건립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글의 말미에 그 나름대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①항과두리성과 주변 관련유적을 포함·소개하는 자료집 제작, ②항과두리성과 주변 관련 유적지가 갖는 역사성과 의미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 ③항과두리성과 기타 관련유적의 역사적 사실과 전설, 구전을 담은 애니메이션[영상물] 제작·제공, ④ 그밖에 관련유적지를 ‘삼별초와 성(城)유적’, ‘삼별초와 오름유적’, ‘삼별초와 물유적’, ‘삼별초와 포구유적’ 등 테마 답사코스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하여 순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 될 경우 제주 삼별초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기행 프로그램이자 문화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나. 보존과 활용방안 제안

1) 우선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항과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과 2012년 『제주 항과두리 항몽유적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순차적이고 계획적

16) 김일우, 2008, 「고려시대 제주 지역의 對蒙抗戰 관련유적과 활용방안」, 『한국사진지학회지』 제18권 제2호, 한국사진지학회, pp. 11-23.

인 학술 발굴조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발굴조사 완료 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복원 및 보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과 논의 과정, 사례분석을 통해 유구[터]의 보존과 복원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원은 내성 관아, 동·서·남문, 망루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복원과 보존과정에서 병행해야 할 중요 과제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자료 전시관’ 건립이다. 건립될 자료전시관은 유물과 유구의 전시,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뿐만 아니라 대몽항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 기능을 갖추어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자료 전시관’에는 항파두리 항몽 유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사[발굴조사 전문인력]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3)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의 ‘토지 이용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보존지역, 시설지역, 완충지역의 조건을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활용구역’을 추가 설정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활용구역은 토지사용실태조사(제주고고학연구소, 2015)에서 확인된 국가[제주특별자치도] 매입필지 중 발굴조사가 끝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에 한해서는 유적 인근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새[출]를 생산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함이 바람직하며 유적 보존에도 보다 효율적이다.

4) 더불어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의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토성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우선 바다쪽[토성 북사면]을 가리고 있는 수목에 대한 제거작업을 시행하는 바람직하다.

5) 또한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자료 전시관’은 제주에 산재하는 50군데 이상의 대몽항쟁[抗戰] 관련유적을 조사하고 종합학술조사 자료집을 만들어야 하며 순차적으로 문화재 지정작업과 이에 따른 표지판 설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덧붙여 항파두리성과 그 주변의 대몽항쟁 관련유적에 얹힌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전설과 구전 등의 내용도 애니메이션, 혹은 영상물로 제작·제공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더불어 항몽관련 유적지를 ‘삼별초와 성(城)유적’, ‘삼별초와 오름유적’, ‘삼별초와 물유적’, ‘삼별초와 포구유적’ 등을 묶어 유적 테마 답사코스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하여 순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7) 장차 강화 삼별초 관련유적, 진도 삼별초 관련유적, 제주[耽羅] 삼별초 관련유적, 타 지역의 삼별초관련 유적을 모두 아울러 연구하는 속칭 ‘삼별초, 대몽항쟁 연구자 모임’을 결성하여, 광역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고고학자 뿐만 아니라 언어·민속·인류학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